‘답답해서’ 방화문 개방…‘생명의 문’ 닫힌다

최근 5년 지역 공동주택 화재 1087건·인명피해 101명

전문가 “환기설비기준 강화·보험료 할인 등 대책 필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길의 확산을 차단해 인명을 보호하는 공동주택 방화문이 주민들의 일상적 편의와 무관심 속에 상시 개방되고 있다. 방화문 기능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소방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의 최근 5년간(2021~2025년) 공동주택 화재 발생 건수는 1087건으로 광주 630건, 전남 45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 10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 63명(사망 11명·부상 52명), 전남 38명(사망 9명·부상 29명)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207건(광주 121건·전남 86건), 2022년 208건(광주 119건·전남 89건), 2023년 218건(광주 124건·전남 94건), 2024년 230건(광주 129건·전남 101건), 지난해 224건(광주 137건·전남 87건)이 발생했다.

방화문은 법적으로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연기 또는 불꽃으로 감지해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해 자동 닫히는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

방화문을 폐쇄하거나 훼손할 경우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현장은 법과 거리가 멀다. 이날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방화문이 활짝 열린 채 문 앞에 수레와 유모차가 놓여 있었다.

인근 다른 아파트 방화문에는 나무 고임목이 끼워져 있었고, 동구 금남로의 한 오피스텔에서는 벽돌과 소화기까지 동원해 방화문을 고정해 둔 모습이 확인됐다.

주민들은 ‘답답함’과 ‘편의’를 이유로 들었다. 한 아파트 주민 김모씨(36)는 “방화문을 항상 닫아야 하는지 몰랐다”며 “햇빛이 들지 않고 공기가 탁해 보여 습관처럼 열어둔다”고 말했다.

안전 전문가들은 이러한 인식 자체가 재난 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송창영 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방화문을 열어두는 순간 계단과 복도가 연기 굴뚝이 돼 대피 시간을 급격히 단축시킨다”며 “평상시엔 불편한 철문에 불과해 보이지만, 화재 순간에는 생사를 가르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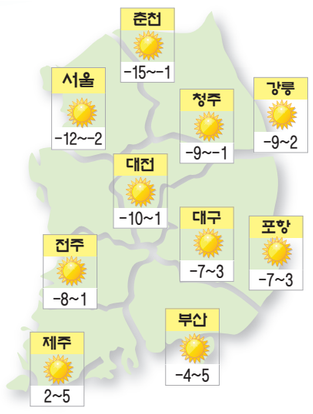
이어 “근본적 해법은 단속만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방화문을 열 필요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기계식 환기 설비나 자연 환기창 설치 기준을 강화해 거주자의 불편을 줄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소방시설 관리가 우수한 단지에는 화재보험료 할인이나 점검 유예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 관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오늘의 날씨

해뜸 07:33 달뜸 14:47
해짐 17:59 달짐 05:18



미세먼지 확인하세요!

광주	광주	-5~2
	목포	-3~1
	여수	-4~4
전남	순천	-6~4
	구례	-7~3
	해남	-4~2
	완도	-2~3
	흑산도	0~2
	고흥	-4~4
	진도	-2~1

목포	밀물 (고)	12:13 / --:--
	썰물 (저)	04:40 / 17:56
여수	밀물 (고)	07:30 / 19:35
	썰물 (저)	00:32 / 13:47

김태형 신임 광주지검 차장검사 임명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등 927명 전보 인사 단행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김태형 대전지검 천안지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35기·46)가 임명됐다.

법무부는 29일 고검검사급 검사 569명과 일반검사 35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일은 오는 2월4일이다.

김 차장검사는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를 지냈다.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에는 이용민 서울고검 검사가 내정됐다. 인권보호부장은 이유현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형사1부장은 김봉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형사2부장은 곽금희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형사3부장은 김진희 순천지청 형사2부장,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서혜선 안산지청 공판부장, 공공수사부장은 황진아 안양지청 형사3부장이 맡게 됐다.

목포지청장에는 정보영 광주지검 인권보호관이 발탁됐다. 장흥지청장은 김지윤 부산지검 공판부장, 순천지청장에는 김성원 홍성지청장, 해남지청장은 김병욱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결정됐다.

광주지검에는 검사 임성환, 전종택, 최희선, 김범준, 나상현, 윤지윤, 라혁, 김세윤, 김동현, 김보민 등 10명이 전보된다.

목포지청에는 검사 4명(이평화, 김리안, 양종화, 이루다)이, 장흥지청에는 검사 1명(심성현), 순천지청에는 검사 7명(최준환, 이채훈, 전종현, 신재욱, 김성천, 구민하, 한지현), 해남지청에는 검사 3명(김혜인, 오창현, 이혜진)이 내정됐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전남 꿈 실현 인생학교 힘찬 출발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이 ‘꿈 실현 인생학교’의 시작을 알리는 ‘꿈 세움 과정’ 1, 2기 캠프를 지난 23일부터 29일까지 목포대학교 도림캠퍼스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꿈 실현 인생학교’는 “내 인생은 내가 설계한다”는 비전 아래, 학생들이 한 해 동안 도전해 보고 싶은 목표를 스스로 찾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미래인재 육성 프로젝트다. 사진은 ‘꿈 실현 인생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이 ‘꿈 세움 과정’ 캠프 수료 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교육청

광산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확대

광주 광산구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의료·요양·돌봄이 연계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강화에 나선다.

광산구는 오는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기존보다 확대해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사와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복약지도 등을 제공하고, 필요시 장기요양 및 돌봄 서비스와 연계하는 제도다. 외래 진료가 어려운 어르신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건강 상태 악화를 조기에 발견해 불필요한 입원이나 응급 상황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광산구는 △우리동네의원 △대화한의원 △박가정의학과의원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며, 가정 방문 의료와 돌봄 연계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광산구는 재택의료센터를 단순한 만성질환 관리에 그치지 않고, 생애 말기 단계에 있는 대상자까지 포괄하는 재가의료·돌봄 연계 체계로 활용하고 있다.

광산구는 앞으로도 재택의료센터를 중심으로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돌봄 제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임정호 기자 ljh4415@gwangnam.co.kr

코인 투자… 지방세 환급금 횡령한 공무원 적발

신분증 도용·양도서 허위 작성…3200만원 빼돌려

재정 손실·행정 신뢰 훼손… 서구, 배임 혐의 고발

광주 서구청 소속 공무원이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환급 업무를 맡은 공무원이 지급 권한을 악용해 3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직기강 해이와 행정신뢰 훼손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광주 서구는 29일 업무상 횡령·배임과 사문서 위조·변조 등 4개 혐의로 8급 공무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광주 서부경찰서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방세 관련 실무를 담당하면서, 10~11월 두 달 동안 환급금 지급 권한을 악용해 신분증을 도용하고 양도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총 3284만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환급 대상자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양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최소 4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환급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는 A씨가 횡령한 돈을 코인 투자 자금으로 사용한 정황도 확인했다.

A씨는 연말 회계 결산 과정에서 환급금 집행 내역을 맞추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한 뒤 결국 담당 과장에게 횡령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과장은 이를 인지하고 지난해 12월29일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했다.

서구는 내부 감사에 착수한 뒤 지난 15일 A씨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으며,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다.

서구 감사담당관은 “자치구 재정에 실질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서구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부서 과장과 팀장에 대해서는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해 경징계와 훈계 조치를 검토 중이다.

한편 서구는 2023년 1월부터 지방세 과오납 환급 업무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환급 계좌 거래 내역과 집행 잔액을 수시 점검하는 등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

신호위반하다 음주운전 들통

만년필

○…술에 취해 교차로 신호를 위반한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음주운전 사실까지 들통.

광주 북부경찰은 29일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5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

A씨는 지난 28일 오후 4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음식점 앞에서 운암2동 행정복지센터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2㎞가량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아.

신호위반을 하며 교차로를 주행한 그는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가 음주운전 사실도 드러나.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0.0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북부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가정을 파괴하는 중범죄다”며 “술을 한잔이라도 마신 후에는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

임영진 기자 looks@

광주 학생들, 세계 무대서 ‘꿈’ 키운다

시교육청, 5월부터 ‘글로벌리더 세계 한바퀴’ 운영

민주인권·예술·생태 등 14개 주제…320여명 참여

광주시교육청이 올해도 학생 국제교류 프로그램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는 시교육청에서 학생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올해 사업은 독일, 몽골 등 15개국에서 △민주·인권 평화통일 △문학 △과학 △특성화고 현장학습 △생태전환 등 14개 주제로 진행된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으로, 320여명이 참여해 세계 주요 학교, 대학, 기관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한다.

또 전세계 주요 명소에서 플래시몹 등을 통해 K-팝, K-댄스, K-푸드 등 한국문화를 전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는 역할도 한다.

시교육청은 폭넓은 참여를 위해 사업 추진에 앞서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안내하는 한편 사회적 배려 대상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배정했다.

더불어 4월부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글로벌 리더 동네 한 바퀴’를 운영한다.

‘동네 한 바퀴’는 대학 연계 프로그램, 지역 체험 프로그램 등 2개로 나눠 진행된다. 대학 연계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학급별로 대학을 방문해 다양한 체험을 하고, 지역 연계 프로그램은 예술·체육, AI 등을 주제로 호남권 지역을 탐방한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생 글로벌 리더 팔도 한 바퀴’도 4월부터 시작된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운영한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세계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있다.

‘팔도 한 바퀴’는 학생들로 구성된 팀이 주제를 정해 전국을 탐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밖에 시교육청은 단위학교 국제교류 내실화를 위해 학교 간 온라인·대면 국제교류, 한국어교육기반 온라인·대면 수업 교류, 유네스코 학교 수업활동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초중등 교원을 중심으로 국제 수업교류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참여형 국제교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고 글로벌 의사소통, 협업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를 통해 학생들이 글로벌 감각을 기르고,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길 바란다”며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체계를 구축해 광주 학생들이 세계 무대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